

특별기고



최경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양식어업에 대한 인류 최초 기록은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의 메리스왕이 22종의 물고기를 연못에 넣어 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454년 단종 2년에 굴을 양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600년대에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광양시 태인도에 서 처음으로 김을 양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양식어업이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초로 생산량이 274톤이었으며 1942년에는 2만톤, 2020년에는 230만톤에 이르는 등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10대 주요산업으로 지목하고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언급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태풍, 집중호우, 고수온, 적조 등 각종 자연

재해로 양식수산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1년간(1968~2018년)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약 1.23℃ 상승해 전 세계 표층수온 상승치인 약 0.49℃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이상기후 양식장 피해 급증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여름철 표층수온은 상승 경향을 보이고, 겨울철은 하강 경향을 보이면서 표층수온의 계절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남해 연안은 약 50시간 이후, 서해 연안은 약 12시간 이후에 표층수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한다.

전남도 해역에서도 바다의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7년과 2018년에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 조피볼락, 돔 등 541만 마리가 폐사해 47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7월 5~6일 집중호우로 강진, 진도 등 4개군 253여가에서 양식장이던 전복, 새우 등 3,800만마리가 폐사해 6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는 이미 2016년에 양식어업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 고·저수온기 어패류 폐사 예방 및 최소화

를 위한 어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온 변화에 적합한 양식방법 개선 및 양식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여름철 유해생물의 신속한 구제 및 질병방역 체제를 구축해 양식어장 환경변화 모니터링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피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 피해를 실손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를 보험사업자로 선정해 보험상품 개발, 판매,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가입대상 품목은 총 28종으로 전복, 넙치,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김, 미역, 다시마 등 전남지역 해당품목은 23종이며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도 피해 보상범위에 포함돼 있다.

주계약과 특약에 따라 태풍, 해일, 호우, 풍랑, 적조, 한파, 이상수질, 저수온, 고수온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내 양식어가 입한 어가는 2020년 기준 1,391개소(26%)로, 이는 2017년 2,285개소(43%), 2018년 2,392개소(45%), 2019년 2,057개소(39%)보다 적은 수치이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가입인식 제고 절실

그 이유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의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증가로 양식어업인들의 부담 상승과 더불어 보장기간은 1년으로, 기간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고수온, 집중호우, 적조, 태풍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갑옷과 방패로 인식하고, 양식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운 양식수산물!

어업인 스스로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자연재해의 끝이기 때문이다.

와인 맛 알아가기

차이점을 확연히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많은 일반 사람들은 포도 종류별 와인 맛이 거기서 거기인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만드는 회사마다 맛과 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도 품종만 가지고 맛을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하지만 와인 맛을 알아가는 패턴이 있다.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시기 좋은 가벼운 톤의 와인을 선호한다.

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마시기 쉽게 만든 와인도 있고 묵직하게 만든 와인도 있다. 대개 맛의 무게가 가벼운 와인이 저렴한 편이다. 그러므로 처음 와인을 접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와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와인을 마시다 보면 점점 무게감이 있는 와인의 맛을 좋아하게 된다.

와인 애호가들은 당연히 와인을 많이 오랬동안 마셔왔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와인을 좋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와인과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와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작정 와인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레스토랑에 와인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와인 공급 업체에 샘플을 요청했던 적이 있다.

수많은 와인들 중에 가격, 무게감 등 여러 각도에서 균형 있게 와인 샘플을 요청했다. 직원들이 마셔보고 좋은 와인을 선정해 놓았으니 검토해 보라고 했다.

직원들이 선정해 놓은 와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과 다르게 산 와인들이 대거 올라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고 와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선정에 탈락한 와인을 시음해 보니 직원들이 선정한 와인 보다 훨씬 맛과 균형이 잡혀있었다.

이렇듯 와인은 접해본 기간에 따라 선호도가 바뀐다. 와인 초보일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 스타일을 분명히 말하고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집어 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와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와인 사이언스 박사, 와인 품질학 석사, 시드니 동그라미 문학회 회원

음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시민들은 해당 집회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특정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집회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집회주최자들은 소음 기준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집회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허현옥 순천서 경비작전계 경장

로컬푸드 직매장 엄격히 관리해야

현지 농산물이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돼 소비자의 사랑을 받던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영 부실과 관리 소홀(전남매일 기획탐사 보도) 등이 문제라고 한다. 갈수록 매장은 늘고 있지만 운영 실태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지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또는 수입 농산물이 팔리고 있고 커피숍 운영 등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또 잔류 농산물 검사기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광주에는 10곳, 전남에는 모두 54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앞으로 순천 로컬푸드와 광양 농협농장점, 정남진 장흥농협, 장성군, 신안 임자농협 등 모두 5곳이 확장 내지 신규 개장할 예정인데 국비 등 지원 금액은 63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직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참

여 농가도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직매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매장의 경우 매출 실적이 감소하고 영업실적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로컬푸드란 말이 무색하게 뉴질랜드산 또는 중국산 등이 판매되거나 국내 타 생산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진열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는 무엇보다 지자체 관계 당국의 감독과 점검이 소홀한 데서 비롯한다. 지난해 부적절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매장이 한 곳이 없다고 한다. 이 래서는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요원하다. 좀 된다면 원칙 없이 타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방만한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본연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다. 당국은 철저히 운영 실태를 감독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학동 붕괴 사고 강력 처벌 필요

법원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골 붕괴참사 현장에서 증거 보전과 조사를 위한 현장검증이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끝났다.

재하도급 업체 대표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구속된 피고인 2명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불법 하도급 차단을 골자로 한 광주 건축물 붕괴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하청으로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과 피해액도 최고 10배까지 배상 등 기존 원·하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와 하수급까지 처벌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도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모를 입찰할 수 없어 행정처

분인 과태료 부과 처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 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으로 인해 이번 참사 책임을 비켜나갔다.

그렇다고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비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부실공사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책임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아 유감이다 유족들도 “불법 재하도급 감독을 소홀히 한 현대산업개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 묵인 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땅에서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독정보형감지기로 안전한 명절나기

기고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요즘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태풍 오마이스가 남해안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혔다. 연이어 때아닌 가을 장마로 가뜰이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온 국민에게 큰 시름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화순소방서는 추석 연휴기간 화재 특별계근무를 실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대상 순찰 및 화재 예방활동 강화 등 화재안전대책을 운영한다.

지난달 31일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도에 추석연휴 중 발생한 화재는 총 2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는 4건으로 14.2%를 차지했다. 피해상황으로 약 9,00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예방 및 저감은 소방서의 화재안전대책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설치가 잘 되었을 때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한번의 설치로 수년 동안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주택의 방한 천장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방 안의 사람이 신속히 대피,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소방시설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리며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하므로 1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무의탁 홀몸노인 주택은 물론 일반주택, 펜션, 원룸 등에 대해 화재 조기 경보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화순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00% 설치 완료했다.

코로나 19 예방백신과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듯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와인 맛을 가능하게데 중요한 요소는 포도 종류에 따른 맛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재배되는 포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와인에 많이 이용되는 포도 위주로 이의 맛과 특성을 이해하면 전체적인 와인의 윤곽이 잡힌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종류는 많지만 맛이 확연히 다른 포도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초보자들도 확연히 맛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포도 종류는 멀로트(Merlot), 피노누아(Pinot Noir), 카버넷 쇼비농(Cabernet Sauvignon) 정도의 종류이다.

멀로트는 쓴맛이 거의 없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서양인들은 멀로트를 표현할

때 자두나 블랙베리 같은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양인들은 부드럽고 순한 맛으로 표현한다. 피노누아는 와인의 무게감이 가벼운 와인이다. 껍질이 얇기 때문에 폴리페놀 양이 적어 떫고 쓴 맛이 약하다. 반면에 카버넷 쇼비농, 시라즈(Shiraz) 같은 와인은 떫고 쓴 맛이 강한 와인이다. 카버넷 쇼비농은 포도 껍질이 두꺼워 와인을 만들때 탄닌이 많이 우려나 떫고 쓴맛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시라즈는 특 쏘는 후추 같은 맛이 있는데 이는 특 쏘는 쓴맛과 비슷하다. 필자 같은 경우는 유난히 와인의 쓴맛을 싫어해서 시라즈 같은 강한 와인을 선호하지 않는다.

한국은 전 세계 각국에서 와인이 수입되기 때문에 와인 종류가 다양하다. 반면에 호주는 외국에서 와인을 수입하긴 하지만 그 숫자가 미미하다. 호주 주류매장에는 거의 호주와인 일색이다. 그러나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 같이 다양한 유럽산 와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와인을 선택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맛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각 와인의

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을 겪게 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 또한 존재한다.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발생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소음 크기는 보통 데시벨(dB)로 표시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시위

예를 들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는 20dB, 보통의 대화소리는 60dB,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은 80dB 정도이다.

보통 소음은 70dB을 넘으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고, 100dB을 넘게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집회 허용 소음 기준치가 초과되는 소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